

닭 경제능력 검정소를 찾아서



박태남 소장

이번에는 한국양계산업의 중요한 치침구실을 하는 대한양계협회의 닭경제능력검정소를 찾아보기로 했다.

서울역에서 김포행 130번 버스를 타고 멋있는 풍경화를 이룬 6월 초순의 김포가도를 달릴 때 올챙이 기자(?)는 피크닉을 가는 기분이 들어 혼자 失笑했다.

1시간 30분이 지나 김포읍에 도착, 종점에서 왼쪽으로 고려공원묘지 입구를 지나 길 양편에 보리밭을 끼고 시골길을 걸으니 먼 숲의 빼구기 울음 소리에 소질 없는 詩 한수(?)라도 짓고 싶은 기분이 되어버린다. 15분쯤 걸었을까? 세청 여우 고개를 올라서니 완만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는 산등성이가 저쪽에 보이며 그 앞에 넓직히 서너동의 계사가 아득하게 자리잡고 있는게 보인다.

이곳이 바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 188-3에 위치한 대한양계협회의 닭경제능력검정소이다.

“방역상의인 출입금지”란 붉은 글씨의 팻말을 조심스럽게 읽으며 초인종을 누르니 박태남소장이 친히 나와 반긴다. 부임한지 열마안되는, 구면의朴소장이지만 새삼 샤프하고 이지적인 인상이라고 느꼈다. 문 앞의 소독판을 서너 차례 밟으면서 악수를 나누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검정소는 푸른 산과 숲에 끼여 있는 셈이다.

먼저 검정계사를 둘러보고 사진촬영을 하고 싶다고 하자 까운을 입으라고 내주더니 느닷없이 분무기로 온몸에 소독약을 뿜어댄다.

“이곳 첫 인사는 좀 독특하군요”라고 농담

취재 : 김 종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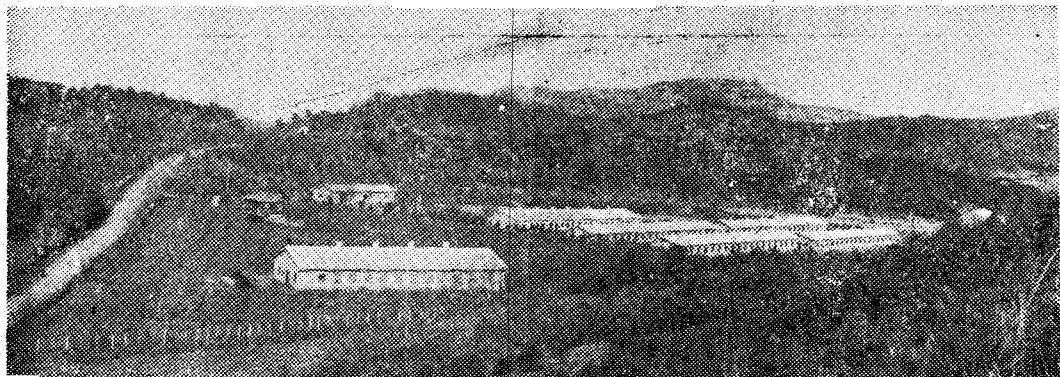
과 이해로 대꾸하면서도 약간 기분이 상한채 (?) 계사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소장은 사무적으로 검정사업의 목적부터 설명하기 시작한다.

검정사업의 목적은 첫째 양계농가에 병아리 구입의 지침을 부여하고 둘째, 능력이 우수한 외국닭을 선발하여 수입하며 셋째, 국산계 개량을 촉구하고 넷째, 도입계(導入鷄)를 再利用토록 하며 다섯째, 사료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여섯째, 학술연구자료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산란계경제능력검정(500일 검정)에서는 육추율, 육성율, 성계생존율, 성성숙일령, 산란율, 산란지수, 난중, 사료 요구율, 채중, 사료소비량, 경제성등을 측정하며 육용계경제능력검정(8주검정)에서는 육추율, 육성율, 성장속도, 군일도, 사료요구율, 경제성등을 측정한다고 한다. 이러한 검정사업은 전진 세계 각국이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양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따라서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므로 계속 협회 자체 부담의 부족한 경비의 국고보조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부로일려산업도 년간 3000만수 이상을 생산하는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하였으므로 육용계에 대한 경제능력검정도 산란계와 같이 좀더 확고한 국가보조가 있어야겠다고 한다.

제10회 검정계 계사(13群분류)를 거쳐 다음 계사에 들어가니 현재 육추사에서 육추되고 있는 제11회 검정계를 들이기 위해 청소 및 소독작업이 한창이었다.

6월 11일부터 제8회 육용계 능력검정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과 일본 및 미국에서도 항



<김포에 위치한 대한양계협회 탐경제능력 능력검정소 전경>

공편으로 수송된 출품증란과 국내출품 종란이 현재 소신종계원에서 부화중에 있다고 한다. 제11회 산란계 검정육추사에 들어서기 전에 다시 한번 분무소독을 해낸다. “적당히 해롭시다”고 한마디 하자 박소장은 방역은 “철저해야 합니다”라고 무뚝뚝하게 대꾸한다. 육추사 케이지 안에는 다양한 색갈의 여러 품종의 명아리들이 분주히 벽이를 먹고 있다. 역시 13群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한다. 검정소는 성계사가 모두 5동, 육추사가 1동, 판사 1동, 관리사 및 창고 1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배나무 밭을 지나 판사쪽으로 올라오며 이곳에서의 생활소감을 묻자, 우선 조용하고 깨끗한 주위환경과 새벽 안개속에서 앞산을 가로 지르며 나르는 백로며, 배꽃이 만발했을 때의 정취 등, 정서적인 생활면에서 만족스럽다고 한다.

“애로사항과 고생이 많을텐데요?”라고 묻자 “썩”웃고는 입을 다문다. 재차 다구쳐 질문하자 소장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업무를 파악하고 보니 애로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며 검정사업은 「정확성」이 첫째이므로 조그만 착오도 없도록 하자니 많은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또한 이정도의 검정소 환경과 시설은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이지만 좀 더 바람직한 업무수행을 위해 일반경비와 인원증강문제가 시급하다고 한다. 소장의 책임은 몹시 중하고人力은 부족하다는 표정이다.

세세한 애로사항을 굳이 내색하지 않는 걸 보니 웬만한 난관은 박소장이 직접 뛰어다니

며 해결하는 것 같은 눈치다.

박소장이 기거하는 방에 들어가니 양계서적과 교양서적이 수북히 쌓여있고 한구석에 허술한 침대하나.

정돈되지 않은 방이다. “또 한가지의 애로사항은 총각이 홀애비 생활을 하는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하고 묻자 박소장은 오래만에 웃음을 터트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박소장은 참고를 하라며 검정기간중 검정계획과 실천, 결과분석을 다루는 탐경제능력 검정위원회 명단을 보여준다.

검정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오봉국(서울농대), 김춘수(한국과학기술연구소), 최창해(서울농업대학 교수), 김순재(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 박영일(서울농대), 설동섭(축산시험장 육종번식연구담당관), 정선부(축산시험장 연구관). 끝으로 역대 검정소장을 물으니 제1대 노영한, 제2대 신정일, 제3대 이영진, 그리고 박소장이 제4대라며 유능했던 역대 검정소장들에 떨어짐이 없이 정확한 업무수행을 차질없이 해내기 위해 좀더 연구하고 성실한 자세를 지켜나가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할것을 다짐한다. 함께 간단한 접침식사를 한 후에 인사를 하고 헤어져 여우고개에 서서 돌아보니 저쪽 육추사로 들어가는 박소장의 모습이 보인다.

새삼 「험난한 축산인의 길」을 생각하며 귀로에 울랐다.

참고로 탐경제능력 검정소 연혁과 사업실적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검정소 연혁

1965년 4월 1일, 산란계 경제능력검정 개시
(광주종축장에서)

1966년 서울시 공농동 511번지에 검정소 대
지 1,798평을 매입

1966. 8. 20 검정계사 65평

육추사 30평

관리사 7평을 신축

1971년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 188번

지, 대지 7천여평의 현위치로 이전 본격적인
검정사업을 개시했다.

(2) 사업 실적

1971. 7. 8. 검정계사(80평)신축

1971. 10. 10. 육추사(100평)신축

관리사(15평)신축

1972. 5. 25. 검정계사 증축(100평) 2동

평사(100평)증축

① 산란계경제능력검정사업실적

회수	사업량		검정기간		비고
	군수	검정수수	착수일	종료일	
1	9	450	66. 4. 1	67. 8. 15	평사검정
2	16	800	67. 4. 1	68. 8. 15	"
3	20	1,000	68. 4. 1	69. 8. 15	"
4	20	1,000	69. 4. 1	70. 8. 15	평사, 케이지검정
5	20	1,000	70. 4. 1	71. 8. 15	"
6	24	1,200	71. 4. 1	72. 8. 15	케이지검정
7	19	2,292	72. 4. 1	73. 8. 15	"
8	16	2,225	73. 4. 1	74. 8. 15	"
9	10	2,000	74. 4. 1	75. 8. 15	"
10	13	2,960	75. 9. 1	77. 1. 15	실시종
11	13	1,950	76. 4. 1	77. 8. 15	"

② 육용계검정사업실적

년도별	회수	군수	수수
1969	1	10	833
70	2	10	750
71	3	10	1,200
72	4	10	1,200
73	5—1	16	2,100
	5—2	8	1,200
74	6	9	1,800
75	7	14	2,100